

민주·평화·인권 'DJ 정신'...전 지구적 문제 해결책 모색

●'김대중 평화페스티벌' 개막

탄생 100주년 기념 목포서 '평화·생명의 길' 주제 개최 김영록 지사 "향후 100년 신냉전·기후위기 극복 이정표"

세계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통해 신냉전·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이 5일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개막했다.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은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사)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 이광일 부의장·김대중 교육감의 환영사,

권노갑 이사장·우승희 영암군수의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 기조강연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열린 평화페스티벌에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기조강연을 했다.

김성재 상임이사는 "신냉전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코스모 민주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넷 잡슨 남아공 투투재단 최고경영자(CEO)는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 한국에 대한 함의' 기



5일 오전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조강연을 했다. 분열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의 공통점을 언급

하며 남아공 투투 대주교와 김대중 대통령, 두 지도자의 정신이 오늘날 평화와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재

조명했다. 또한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국-중국-러시아의 대결과 세

계평화의 길', 김명자 카이스트 교수의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주제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6일엔 차승균 서울대 교수의 'AI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 주한 동티모르·독일 대사의 '역사적 유대, 김대중과 동티모르', '김대중, 독일인 시각으로 본 그의 유산' 주제강연이 예정돼 있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고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며 "전 지구적 위기 앞에 다시금 중요한 이정표로 주목받는 '김대중 정신'이 널리 기억되고 길이 이어지도록 전남도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앞으로의 100년도 신냉전,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를 '김대중 정신'으로 극복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세상'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김재정기자

'자료 제출 부실' 광주테크노파크 행감 파행

시의회 산전위 "전년·올해 제출 자료 불일치·오기 많아"

광주시의회는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제출 부실로 인해 중단되는 등 파행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테크노파크 현황 보고 자료 부실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테크노파크가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오기된 내용들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2023년 직급별 급여 내역의 경우 지난해 보고에서는 임원·단장·본부장 합산액이 2억5천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23년 기준 5천600만원만 지급했다고 축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6급 급여 수치는 14억원에서 21억원, 7급은 8억6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크게 달라져 있으며 공무원 급여 현황은 아예 누락했다"고 질타했다.

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도 2022년 기준 매출을 6천601억원으로 보고했다가 3천900억원으로 바꿔 보고하기도 했다.

장비 활용 관련 자료도 수치가 바뀌었고 공사 입찰과 계약 목록 중 일부 업체가 누락된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테크노파크 측은 "일부 오류는 산전위 위원실 한 공무원에

게 수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자의 실수로 보이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확연히 떨어뜨리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실한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민선 8기 들어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정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지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테크노파크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자료 불일치와 미비 등으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 내에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경기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지역 농식품 600만달러 수출협약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5일 나주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특화 우수농식품 품평·수출상담회를 열어 600만달러 수출협약 성과를 냈다.

이번 상담회는 농업 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 협업으로 진행됐다.

9개 국내 유통사 MD와 오스트리아

판아시아, 미국 키트레이딩 등 해외 바이어가 참석해 1대1 수출 상담 및 제품 품평을 진행했다.

수출 상담 결과, 나주시와 판아시아, 키트레이딩은 각각 100만달러, 5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했다./양시원기자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관광재단 전문성·독립성 높여야"

이규현 도의원 "편의적 민간위탁 능사 아냐" 지적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최근 전남도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관광재단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종 사업 민간위탁과 관련, 전남관광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

에 부응하는 사업의 경우 출연금으로 지원해 사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 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관광재단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부득이

할 경우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주관 교육기관이 빈번하게 바뀌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학교 내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고민을"

서대현 도의원 "도교육청 방향성 확고히 해야"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 학생 스마트폰 사용과 자제에 대해 전남교육청의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권위원

회에서도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도교육청도 확고한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생생활 규정에 따라 학

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권한이지만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휴대폰 사용에 관한 학생 생활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전남 교육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기자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